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 놓고 지역민 의견 봇물

고흥서 2차 도민공청회 열려
순천대 공모참여 촉구 목소리
인구수·의료수요 반영 요구도
오늘 영암·내일 장성서 공청회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 공청회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대해 도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2차 도민공청회가 21일 고흥군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주최로 열린 이날 2차 동부권 공청회에는 의료계와 교육계, 사회단체, 일반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추천 공모절차와 기본방향,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사는 이날 설립방식안으로 '단일대학에 2개의 병원을 신설하는 방식', '단일대학에 병원은 한 곳만 신설하고, 한 곳은 공공의료원 등 기존병원을 인수하는 방식', '단일대학에 1개 병원만 신설하는 방식' 등 회의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청회에 참여한 도민들과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고흥군 주민 A씨는 "최근 전남도 공모참여를 반대했던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순천지역 시도의회 의원들이 '전남도 공모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순천대에서 공모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T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최근 순천대에 설립방식과 지원방안 등을 설명드리고 대학 측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학설명회 참여를 요청드렸다"며 "동부지역 정치권에서 '전남도 공모 참여'에 힘을 실어 순천대도 공모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순천시민 B씨는 "양 대학과 지역이 모두 사는 가장 좋은 방안인 '공동의대' 방식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오 파트너는 "공동의대 방식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설립 방식과 별도로 중장기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용역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위원 선정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용역은 3단계의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되며, 인적·물적까지 고려해 지역출신 배제하고, 용역사 직원까지도 출신지역을 확인하고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파트너는 "누군가의 입김이나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밀실운영을 하지 않고, 모든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재정계획과 부담주체에 대한 로드맵 필요 △인구 고려 동부권에 대학병원 신설 후 서부권 이송체계 개선·보완 △평가기준에 인구수와 의료수요 반영 △공모진행상황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용역사 오 파트너는 "정부의 의대 신설 정원 배정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학 추천 공모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용역사에서는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공정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 대학이 공모에 꼭 참여해 도민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차 공청회는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도내 여러 지역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3개 권역별 군에서 열리며, 서부권은 22일 오전 10시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중부권은 23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남도의병 활약상 콘텐츠 공모전

의병 10인 대상 활약상 재조명
스토리·캐릭터·웹툰 등 3개 분야

전남도가 건립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에 활용할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4 남도의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전은 '남도의병의 혼, 그 영원한 별빛을 찾아'를 주제로 남도의병의 활약상을 그린 스토리, 캐릭터, 웹툰, 3개 분야 작품을 모집한다.

제작 대상 의병은 임진왜란 전후 의병 5명과 대한제국 전후 의병 5명이다. 전남도는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해 활약상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한 이들 의병 10명을 선정했다.

임진왜란 전·후 5인으로는 김충수(무안), 박광전(보성), 왕의성(구례), 임환(나주), 황대중(강진)이, 대한제국 전·후 5인에는 고광순(담양), 기삼연(장성), 심수택(함평), 양회일(화순), 황병학(광양) 등이 있다.

응모는 개인이나 3인 이내 팀으로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11월5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namdo@nthree.com)로만 가능하며 당선작은 12월께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분야별로 대상 1편(250만원), 최우수상 1편(150만원), 우수상 2편(70만원), 장려상 3편(50만원)으로 전남도지사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교육, 홍보, 전시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남도의병 콘텐츠 공모전 사무국(02-6248-6516)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나주 공산면 일원 36만3686㎡ 부지에 총사업비 42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994㎡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체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 서구 착한톡톡 정책간담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1일 서구 양동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에서 서구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한 주민들과 착한톡톡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참석자들은 지난해 서구 취업 지원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자립청년, 다문화 이주여성, 장애인 등으로 취업 후 서구로부터 '100일 케어'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이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받으세요"

내달 2~10일 모범기업 공모

광주시는 '2024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을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복지증진에 기여한 모범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첫 시행 이후 총 373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의 인증기간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구조고도화자금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5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모집 공고일(8월21일) 기준 광주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최근 1년간 고용실적,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환경 등 정량평가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직원복지 증진 노력, 고용창출 확대방안,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여부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광주형청년일자리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2일부터 1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캐릭터 '귀요미 빛돌이' 돌아왔다

2000년생 캐릭터…온라인 귀환
SNS 통해 시정 홍보요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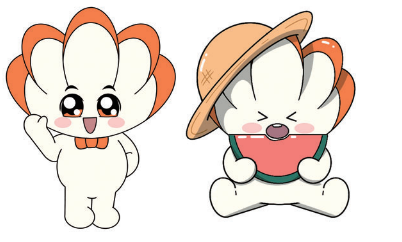
2000년생 광주시 캐릭터 '빛돌이'가 화려하게 컴백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 gwangju_official)를 통해 캐릭터 '빛돌이'의 귀환 소식을 알렸다.

'빛돌이'는 2000년 1월1일 생으로, '광주의 빛'을 발산하며 사랑받았던 빛돌이는 광주의 문화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열정을 장착하고 돌아왔다.

빛돌이는 온라인상 화제의 '삐끼삐끼' 춤을 추는가 하면 무등산 계곡 여름휴가로 새카맣게 탄 피부로 등장하는 등 깜짝 변신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태의 짧은 동영상(세로형 숏폼)을 통해 공식 복귀 기자회견을 선보이고, 광주문화관광 캐릭터인



광주 SNS 홍보요원 **빛돌이**

'오매나'를 부러워하며 본격 대결을 예고하는 모습 등이 웃음을 자아낸다.

빛돌이는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활짝 열린 '큰 귀', 맑지만 은은한 광기가 있는 '눈빛',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입가' 등 더욱 새로워진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온라인 홍보요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이는 광주시가 2030 세대를 겨냥해 광주시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온라인 홍보를 기획한 덕분이다.

광주시는 문화관광 캐릭터인 '오매나'와 '빛돌이' 두 캐릭터의 신구 조화로 시정 홍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머리부터 재밌는 빛돌이', '오매나, 빛돌이 둘다 흥해라', '빛돌이 귀여워', '오매나한테 쫄지마', '빛돌이에게 빛며들고 있는 1인이다'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박광석 대변인은 "광주시 SNS에서 귀여움으로 무장한 빛돌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주시 캐릭터 빛돌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친숙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의 모든 정보와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두의광주(news.gwangju.go.kr)'에 21일 빛돌이의 서사가 담긴 페이지가 열린다. 빛돌이의 귀여운 외모 특징, 혈액형, 출신, 취미, 관심사, MBTI 등 빛돌이 프로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4일까지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여객시설 등 103개소이며, △화재 대비 소화 장비 및 방화구획,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기·기계실 등 유지관리 상태 △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관리주체에 추석 전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